

■ ■ ■ 수석합격기·양과 합격기

[2014년 5급공채 법무행정직 수석합격 · 2014년 (제56회)사시 합격]

긍정의 힘



최윤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 졸업
- 2014년(제56회) 사법시험 합격
- 2014년 5급공채(행정고시) 법무행정직렬 수석 합격

I. 들어가며

합격자 발표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양과에 합격했다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합격한 것도 아니고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공부 방법으로 합격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합격 수기를 쓰는 것에 대해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많은 합격자들의 수기를 읽으면서 마음을 다잡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수험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기에 제가 쓴 합격 수기를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합격 수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수험 생활을 하면서 ‘과연 될 까’라는 끊임 없는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적지 않은 나이에 수험 생활을 시작하였기에 이러한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이 보통의 수험생들보다 더욱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을 ‘합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시키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기에 합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공부에 집중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II. 수험 생활의 시작과 끝맺음

대학 재학 시 사법시험에 도전하였으나 성실하지 못한 수험 생활로 실패하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곧바로 공군 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하여 공군 정보 장교로서 5년간 복무 후 전역하였습니다. 전역한 년도에 행정고시와 입법고시 1차 시험에 합격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고 나이 제한에 따라 취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공기업(한국수력원자력)에 취업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였지만 3년차 이후부터는 심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었고 매너리즘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가 필요하였습니다. 돌파구를 모색하던 중 법조인 또는 공직자가 되기로 결심하였고 2010년 7월에 회사를 그만 둔 후 35살의 나이에 수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사법시험 1차와 입법고시 1차에 합격하였지만 2차 시험은 불합격하였고 2012년에는 재시에도 불합격하여 큰 좌절을 맛보았으며 수험 생활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취업은 불가능하였고 무엇을 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 방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득 '기왕 시작한 일이니 끝을 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부랴부랴 2013년 사시 1차를 준비하게 되었고 합

격하게 되어 삼시를 준비하였으나 불합격하였습니다. 1번의 2차 시험 기회가 남았지만 심신이 지쳐서 더 이상 도전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시작하였고 2014년에 4시로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행정고시 법무행정직렬에도 합격하여 수험생활을 무사히 끝맺을 수 있었습니다.

III. 공부 방법

합격생마다 공부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느 방법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합격생의 의견을 종합하여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서 밀고 나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학원 강의는 재시때 신림동에서 실감을 들었고 PSAT준비를 위해 실전모강을 인강으로 들었으며 별도로 스테디는 하지 않았습니다.

1. 사법시험

(1) 제1차시험

사법시험 1차는 2011년, 2013년에 응시하였고 모두 합격하였습니다. 1차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빠른 시간 안에 정확히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정확한 암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론

보다는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분량을 최대한 줄여서 반복하는 것이 고득점을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에는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을 병행하면서 기본서에 기출된 내용을 모두 표시해 두었고 계속해서 틀리는 부분도 표시를 해두어 기본서를 반복해서 보았고 자주 출제되는 조문이나 잘 외워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 노트를 작성하여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판례는 별도의 판례집을 보지는 않았고 기본서에 있는 판례와 최신판례집을 통해 대비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약1개월 정도의 준비 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본서 대신에 OX 문제집을 반복해서 보았고 판례는 최신판례집을 보면서 대비하였습니다. 진도별 모의고사도 하지 않았고 학원 강의도 수강하지 않았지만 두 번 모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가 보았던 교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1년

- 헌법 : 정회철 '기본강의 헌법', 기출문제집, 상·하반기 최신 판례
- 민법 : 박기현 '핵심정리 민법', 권순한 '친족·상속법', 기출문제집, 상·하반기 최신 판례
- 형법 : 신호진 '형법요론', 기출문제집, 상·하반기 최신 판례

○ 2013년

- 헌법 : 김유향 '기출지문 OX', 상·하반기 최신 판례
- 민법 : 김동진, 원영섭 '민법 필수지문 정리의 종결', 상·하반기 최신 판례
- 형법 : 이용배 '신체계 형법 핵심지문 총정리', 상·하반기 최신 판례

(2) 제2차시험

2차 시험은 4번 응시 만에 합격하였습니다. 초시는 총점 45점, 재시는 총점 25점, 삼시는 총점 10점 차이로 불합격하였으며 과락은 없었으나 컷을 넘긴 과목이 삼시에 처음 있었을 정도로 저조한 점수를 면치 못했습니다. 초시 때는 학원 강의를 듣지 않고 기본서와 사례집만을 반복하였고 재시 때는 신림동에서 학원 강의도 수강하고 답안 작성 연습도 하였으나 불합격하였습니다. 삼시를 치르고 나서 불합격한 원인을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 최소한의 분량으로 정리하여 반복하지 않은 것과 답안 분량이 부족했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4시 때는 12월 중순이 되어서야 준비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학원 순환 강의를 따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행시 1차 시험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1월부터 모든 과목을 한글 파일로 정리하여 서브노트를 만들기 시작했고 형사소송법을 제외하고 3월 중순까지 70~80 페이지 분량의 서브노

트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서브노트는 단순히 기본서를 요약한 것이 아니라 논점에 대해 답안에 쓸 수 있는 분량으로만 정리하여 암기 후 바로 답안에 쓸 수 있도록 작성하였고 기출된 논점은 서브노트에 표시해 두어 강약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서브노트 완성 이후부터 시험 전날까지 서브노트와 사례집만을 반복해서 보았고 서브노트에 있는 내용은 완벽하게 암기하려고 하였습니다. 답안작성은 모의고사 문제를 구하여 혼자 작성해보았고 모범답안과 비교하여 누락한 논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답안 분량이 부족한 것은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하고 시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조문은 모두 암기하였고 답안 쓰는 순서도 1, 2문에 관계없이 아는 문제부터 먼저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법전 찾는 것을 최소화하고 아는 것부터 먼저 답안 작성을 하면서 실제로 답안 분량을 모두 채울 수 있었고 시험 시간이 부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브노트를 작성하면서 참고했던 교재와 서브노트와 함께 보았던 교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 : 김유향 '핵심정리 300', 정희철 '헌법사례연습', 김유향 '상·하반기 최신판례'
- 행정법 : 김기홍 '핵심정리 행정법',

정선균 '행정법 예기스 연습', '행정법 예기스(핸드북)', 정선균 모의고사(2, 3순환)

- 상법 : 김혁봉 '상법신강', 김혁봉 '상법사례연습'
- 민소법 : 이창한 '통합 민사소송법', 이창한 모의고사(2, 3순환)
- 형법 : 이재상 '더 형법', 이재상 '형법 Case의 바이블', 이재상 모의고사(2, 3순환)
- 형소법 : 정주형 '최종정리 형소법', 이재철 'Law Man 사례 형소법' 노명선 '판례연구 형사소송법'
- 민법 : 윤동환 '민법의 맥', 윤동환 '민법 기출의 맥', 김준호 '민법판례 250선', 윤동환 모의고사(2, 3순환)

(3) 제3차시험(면접시험)

사법시험 면접은 행정고시 면접에 비해서 크게 부담은 없었습니다. 따로 스터디를 조직하여 준비하지 않았고 2차 시험때 보았던 서브노트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대비하였습니다. 면접은 집단토론 60분, 개별면접 10~15분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집단토론은 주어진 주제에 대해 9명이 한 조가 되어 찬반의견에 대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개별면접은 미리 작성하여 제출한 사전조사서를 기반으로 한 신상에 관한 질문과 법적 지식을 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속한 조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수혈 거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와 모욕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였고 개별면접에서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사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집단토론은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적절한 발언횟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개별면접은 모르는 사례가 나오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법적 지식을 최대한 동원하여 논리 정연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5급공채(행정고시)

(1) 제1차시험

2011년에 기출문제만 풀고 들어간 입법고시 1차 시험에 합격하여 PSAT는 시험 직전에 기출문제만 풀면 합격하는 시험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 2013년 행정고시에서 큰 점수 차이로 낙방하였고 기출문제만 풀면 된다는 저의 생각은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솔직히 PSAT에 합격할 자신이 없었고 2014년 시험을 볼 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었기에 시험에 응시하기로 하였고 제대로 준비해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모강시즌이 되면서 영역별로 모강을 신청하여 실전모의고사를 풀고 자주 틀리는 유형에 대해서는 별도의 노트 정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인강을 통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

는 노하우를 습득하여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른 강사의 모의고사 문제뿐만 아니라 전년도 모의고사 문제까지 구해서 시험 전날까지 풀어보았고 예년과는 달리 자신감을 갖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2개월간 PSAT 준비에 매달린 결과 평상시 70점에 머물던 자료해석영역에서 90점을 얻었고 여유있게 1차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2) 제2차시험

행정학을 제외하고 사법시험 과목과 중복되어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5년, 2006년 시험에서 10면을 다 채우고도 행정학에서 과락을 맞은 경험이 있었기에 행정학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행정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1차 시험이 끝난 뒤 곧바로 송윤현 강사의 행정학 1순환을 인강으로 들었고 서브노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서브노트를 완성한 후 곧바로 같은 강사의 3순환을 인강으로 들었고 답안작성 연습을 통해 행정학에 대한 공포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법시험 2차가 끝나고 나서 이를 후에 2차 시험을 보게 되어 체력적으로 매우 힘들었고 중도에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사법

시험과 달리 하루에 한 과목씩만 보게 되어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면서 시험을 볼 수 있었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무사히 시험을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3) 제3차시험(면접시험)

2차 시험 합격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면접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후 면접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밀려왔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너무 막막했습니다. 우연히 행시사랑 카페를 살펴보다가 법무행정직렬 면접 스터디 모집 공고를 보았고 2차 합격자 10명으로 구성된 면접스터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스터디는 4주간 매주 4회 저녁 6시부터 진행되었고 집단토론과 개인발표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압박감과 다른 스터디원들보다 뒤떨어진다는 자괴감이 하루하루가 힘들었고 수험 기간 중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면접날짜가 다가왔고 떨리는 심정으로 면접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면접시험은 사전조사서 작성 20분, 집단토론 60분, 개인발표문 작성 30분, 개인발표 15분, 인성면접 30분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전조사서 질문이 사례형으로 나와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꼈고

개인발표 또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와서 적잖이 당황하였습니다. 개인발표시 크게 압박 질문을 받지 않았으나 인성면접은 철저히 사전조사서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서 사전조사서의 내용을 기억해내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2014년 면접을 살펴볼 때 향후 면접에서는 인성면접 강화 취지에 따라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진실한 사전조사서 작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진실한 답변 즉 응시자의 진실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을 무사히 마친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불안한 마음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발표를 기다렸고 수석 합격이라는 뜻하지 않은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IV. 기 타(답안작성, 수험생활 전반)

주관식 시험의 특성 상 답안 작성에 대한 자신의 방법을 찾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채점자가 답안을 자세하게 보고 채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채점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강렬한 인상을 주는 문제제기와 더불어 명쾌한 해답이 담겨있는 결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렬한 문제

제기와 명쾌한 결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조문의 적절한 적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제에서 법조문이 주어진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답안 작성시 항상 법조문을 적시하려고 노력했으며 반복되는 조문이라도 문제제기-본론-결론에서 계속해서 적시하였습니다. 답안작성에서 글씨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저는 악필은 아니지만 실전에 들어가면 글씨가 심하게 흔들려서 별로 보기 좋지 않은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초등학생 글씨 같지만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큼직하게 쓰자는 심정으로 답안을 작성하였고 예쁜 글씨는 아니지만 합격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악필이더라도 채점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알아볼 수 있게 답안 작성을 한다면 합격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활 중 스트레스 해소 또한 합격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않게 되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수험 생활에 악영향을 끼치게 때문입니다. 가벼운 산책과 같이 매일 꾸준한 운동이나 가까운 곳으로의 여행 등을 통해 수

험 생활의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다면 합격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V, 마치며

제가 어떤 선택을 하던지 항상 저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묵묵히 지난 4년간 수험 생활을 뒷바라지 해 준 사랑하는 아내에게 합격의 영광을 돌립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수험 생활을 시작한 아들과 사위를 믿음으로 지켜봐주신 아버지, 어머니, 장모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힘든 수험생활을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형님과 형수님, 그리고 처형 내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수험생활의 고충을 이해하고 넉두리를 들어준 진을 형님과 상호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매년 맛있는 저녁과 술로 수험생활을 위로해 주신 송차장님, 홍과장님, 그리고 면접 준비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간 법무행정직렬 면접스터디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합격수기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고시계에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짧지않은 수기를 끝까지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긍정의 힘으로 합격의 영광을 받드시 이루기를 기원합니다.